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자유

성경말씀: 갈5:1

지난 한 달: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 배도의 때, 그리스도인에게 큰 영적 스트레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대단히 어렵다. 딤후3:12: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고백의 사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히12:1-2).

고난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그런데 구원 이후 고난, 그리고 후에 영광
주님의 마지막 권고(10:37-39)

오늘은 < >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인 영혼의 자유를 살펴보려 한다.

자유

한마디 말이 천둥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세계가 공유할 때, 그것은 그 말을 한 사람의 것만은 아니다.

패트릭 헨리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가 그렇다. 세계인의 귀에 깊숙이 박힌 이 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방향이 되었다.

자유인으로 사느냐 노예로 사느냐? 미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영국의 탄압이 강경해지자 아메리카 혁명 세력의 저항 또한 거세지고 있었다.

혁명 세력은 식민정부의 무력에 대항할 민병대를 조직하기로 했다. 1775년 3월 23일,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의 세인트존 교회, 버지니아 식민지 협의회는 이곳에서 민병대를 조직하기 위한 중대한
모임을 갖고 있었다. 여러 사람이 발언했지만 의견이 분분하여 뜻이 모아지지 않고 있었다. 그때
한 신사가 나섰다. 쩌렁쩌렁 울리는 신사의 목소리에 주위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의장님, 사태를 완화시키려는 것은 이제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평화, 평화를 거듭 외치고 있지만,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은 실제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에 북쪽에서 불어올 강풍은 우리의 귀에
무기가 맞부딪치는 소리를 들려줄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이미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한가하게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쇠사슬을 차고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목숨이 그리도 소중하고, 평화가 그리도 달콤하
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길을 인도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모르지
만, 나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숨소리도 들리지 않던 좌중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오면서 “무장하자! 무장하자!”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이 신사는 바로 미국 독립투쟁 시기 전설적 웅변가 패트릭 헨리였다. 온건파 세력은 무장
충동을 피하려 했지만, 헨리는 민병대를 모집하고 전쟁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했었다.

그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빛나는 연설 경력 사상 가장 유명한 열변을 토했던 것이다.
그 뒤 1년이 지나서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 선언

자유: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엇이든 해도 된다.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 구성원이 '자유사회'로 탈출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행까지도 제한하고 또 억제한다.

자유 늘 듣는 말,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자유의 원천이 무엇인지 아는가?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국가가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음을 아는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영원한 자유인이 되는 것을 아는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시대 예언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늘의 왕국 설립

그러나 성경 첫 부분으로 가면 그 이상의 목적, 첫 아담의 죄와 실패, 여자의 씨 약속(창3:15)

마귀 멸절, 인간의 문제: 마귀의 속박(히2:14-15), 벗어나지 못하면 마귀와 함께 지옥 불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기사, 침례, 마귀 시험, 나사렛에 가서 성경을 읽으시며 공생애 시작(눅4:16)
대언자 이사야의 책, 사61:1-2,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21).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선포(18-19 읽고 설명), 한 마디로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왜 자유를 주시는가?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죄에, 세상에, 육신에, 율법에, 죽음에, 지옥에 속박되어 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이다.

롬6:16-18,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이것이 구원이다.

20-23,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23).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는 자유가 생긴다. 속박에서 벗어나

그러므로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와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 억압하는 국가와 통치자는 마귀의 사역자

이상한 일: 종교가 자유의 가장 큰 장애물

드디어 예수님은 구약시대 철폐, 신약시대 개시, 가장 큰 특징, 제사장 계급의 철폐

제사장: 신정국가 시대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신정국가에서는 제사장이 없으면 일이 안 된다. 특별 계급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직통 나가는 길이 생겼다. 더는 신정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AD 90년경에 이미 니콜라당이 생겼다(계2:6, 15).

기독교의 부패: 교회의 아버지들(교부) 등장, 아버지 중의 아버지 교황 등장, 제사장과 평신도 계급

고해성사, 신정국가 형성, 이런 일이 루터의 종교개혁까지 무려 1000년 이상, 중세암흑시대

이 기간에 크리스천의 자유를 고수하려고 투쟁한 수많은 사람들, 성경 신자들 처형됨

또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뒤 사제들만 읽고 라틴어로 강해, 그러니 거의 모든 백성은 지옥 행

이런 시절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마르티 루터: 교황의 하나님 행세, 신정정치, 사제들의 각종 불법,

민초들의 불행,

본인 마음에 불안, 고해성사, 로마 방문, 고행, 새벽기도 등 수없이 해도 해결이 안 됨

이때 루터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 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유대인 교사들의 등장, 율법 특히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구원 이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사도 바울의 강한 어조(1:6-9),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은혜로만 된다(2:15-16), 경고(3:1-3),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율법의 목적(3:24-25), 그리스도의 오심(4:4-7),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

아브라함의 두 아들(21-31),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 하갈, 결론(31).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1), 마르틴 루터의 귀를 때렸다. 패트릭 헨리의 연설처럼

그래서 그는 오직 의인은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자유 설교

마귀, 죄, 사망, 신정정치, 제사장 계급, 교황, 종교놀이에서 벗어나는 해방과 자유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경제 등 사람을 억누르는 사회의 여러 악습에서 벗어나 선포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온 세상에서 선포하는 가치, 프로테스탄트 가치

인류 역사 시작 후 5,5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자유 이해, 보편적 적용

근대 시민 사회에서 말하는 '자유'란 다른 아닌 개인의 자유를 지칭한다. 이때 '개인'이란 '개체'로서의

인간을 말한다. 서양에서도 이 같은 의미에서의 '자유' 개념은 비로소 근대(근대란 종교개혁 이후)에

와서야 부각되었다. 개인 주체의 개념이 없는 곳에서 '자유' 개념은 형성될 수 없는바, 한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도 '주체성'에 대한 의식은 사춘기에 이르러서나 뚜렷해지듯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도 '개인 주체'의 개념은 상당 기간의 문화 체험을 한 근대에 이르러서야 형성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개인'은 '개체'로서의 인간이자 행위 주체로서의 인간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기득권 세력의 반발, 프로테스탄트들, 침례교인들 미국으로 가서 자유의 가치를 가진 첫 국가 형성(1776

년), 그 이후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온 세상에 전달됨

미국 헌법의 뿌리: 99%가 기독교, 기독교는 그리스도이다.

이런 미국도 1920년에 가서야 여성 투표 허용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누리는 이런 자유는 실제적으로 100년이 안 됨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7-8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선호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중심의 제헌 국회 세력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면서 미국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헌법을 도입, 1948년 8월 15일 자유 민주주의 국가 건국
그 결과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자유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나? 누가 주는가?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가 반대하는가, 마귀와 그의 세력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천주교, 이슬람 등의 신정국가 세력
어떤 나라와 교회와 개인이 가장 잘 사는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나라, 교회, 개인
미국, 캐나다, 영국, 대한민국, 이스라엘 등, 침례교회

어떤 나라와 교회와 개인이 가장 못 사는가? 개인의 자유를 막는 나라, 교회, 개인

소련, 중국, 북한, 천주교 남미, 중동 이슬람 국가들

그래서 우리 침례교, 성경 신자들의 가장 큰 가치는 영혼의 자유, 종교 개혁의 가치, 미국의 가치,
성경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성경을 읽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믿고 행할 수 있다.

다만 지역 교회로 모일 때는 교회 회중이 정한 믿음과 약속에 따라야 한다.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야
한다. 오후에 설명할 것이다.

결론

지금 마음대로 자유롭게 숨 쉬고 있다. 매이지 않아서 감사한가? 특히 믿음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5:1).

마귀에게, 죄에, 세상에, 육신에, 율법에, 죽음에, 지옥에서 벗어났는가?

영원한 자유인이 되었는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것 감사한가?

다시는 사회주의/공산주의, 구약의 신정정치, 제사장 계급주의의 멍에를 메면 안 된다.

더 망가지기 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회복을 위해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